

수출규제 관련 중국동향(12.6~9)

1. 한·일 국장급 회의 관련

□ [언론 동향]

- 중국신문망(中国新闻网)은 12월 16일 도쿄에서 열리는 ‘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’에 대한 양국의 전망을 인용 보도¹⁾

o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화에서 양국이 수출관리 제도 및 제도 운용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며, 최종 목표는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와 수출 제한 조치의 철회라고 밝힘.

o 일본도 2020년 도쿄 동계 올림픽이 임박함에 따라 한국과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올림픽 개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

o 일각에서는 12월 말 예정인 한·일 정상회담 이전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전망

- 환구망(环球网)은 12월 16일 진행되는 ‘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’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 철회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인용 보도²⁾

o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번 정책대화에서 수출 제한조치 철회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라며, 양국은 수출관리 제도와 그 운용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답함.

2. 기타

□ [언론 동향]

1) 「韩日重启出口管理政策对话 经济矛盾能否找到出口?」, 『中国新闻网』(2019. 12. 06)

2) 「高级别对话继续 日本对韩国出口管制不松口」, 『环球网』(2019. 12. 07)

- 국제재선(国际在线)은 한국 아주경제와 일본 매체 AERA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한·일 간 분쟁에도 양국 국민의 부정적 감정은 악화되지 않았다고 보도³⁾
- o 이번 조사는 116명의 일본인과 100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, 그 결과로는 한국을 좋아한다(36명), 한국을 싫어한다(60명), 한국을 혐오한다(20명)이었으며, 일본을 좋아한다(15명), 일본을 싫어한다(51명), 일본을 혐오한다(34명)로 나뉘어 나타났다고 보도
- o 한일 관계 악화 이전과 이후 의견이 변화했냐는 물음에 응답자 중 65%(76명)의 일본인과 57%(57명)의 한국인은 ‘변하지 않았다’고 답변
- o 양국의 부정적 평가는 대부분 정치가와 매체로부터 만들어진 ‘권위적 신호’라며, 양국의 대립 격화를 막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일본 매체의 평가를 인용 보도(AERA)

3) 「输给谁都行，就是不能输给日本！民调显示日韩民众这样看彼此」, 『国际在线』(2019. 12. 06)